

###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性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는요?” 비뇨기과에서 환자들의 진료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다. 요도염·전립선염·비대증·발기장애·조루증 등 대부분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들은 수술을 하려면 며칠간 금주를 해야 하나고 물어보는 것이 필수적인 정도다.

비뇨기과에서 음주와 성기능과의 관계는 뿔뿔이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신혼여행을 가는 새내기 부부에게 와인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을 끝내고 민사가 피곤하고 긴장도 되는 만큼 약간의 음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다. 여기서 와인은 피로 회복 및 대뇌 성중추를 자극시켜 부부의 백내장 치료를 위한 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과음은 다르다. 중추신경계를 마비시

키고 근육이 풀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음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소심하거나 강박관념이 심한 사람에게는 ‘다음에 또 발기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다보면 실제 발기 장애 환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40대나 50대 초반에서 나타나는 발기 장애의 상당수가 과음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물론 음주가 성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만성 알코올중독은 말초신경병을 초래해 기질적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다. 또 간 기능을 감소시키고 부차적으로 혈중 여성호르몬 수치를 상승시키고 남성호르몬 수치를 감소시켜 정자형성기능을 저하시켜 불임증도 일으킨다. 알코올중독 환자가 금주를 하게 되면 약 50%정

도에서 기능이 회복되나 중독 기간이 길면 회복 불가능이라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성신경이 풀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았거나 성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까 하는 수행불안증이 동반될 경우에 그렇다. 특히 과음하면 발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음주량만 적절히 조절하면 사정중추를 억제하는 사정 연장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루증 환자들이 흔히 이용하기도 하지만 술로 해결하려고 반복 시도, 습관화되면 오히려 성욕과 성반응이 감퇴될 수 있다. 때로는 주량을 증가해야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만성 알코올중독자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양의 음주는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고 부끄러움이나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성관계에 임할 수 있어 불감증환

자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많은 면 역효과를 부르게 된다. 흡연도 섹스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는 큰 적이다. 니코틴은 발기에 필수적인 음경해면체 근육의 이완을 방해하고 음경내로 혈액의 유입을 감소시킨다. 또 음경 내로 유입된 혈액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맥의 수축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시켜 발기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하루에 30개 이상 계속 피우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성기능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발기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환자라면 발기 장애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 커피나 홍차를 즐겨 찾는 직장인들도 많다. 보통 하루 2~3잔 정도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커피나 홍차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은 일종의 흥분제. ‘섹스 때의 흥분에 좋지 않을꺼’라는 생각을 갖게 될 지 모르지만 신경이 예민하거나 하루 20잔 이상 마시는 경우 신경이나 감정을 고요시켜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칫 긴장감이 높아져 발기가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조루증 증세가 심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블렌 비뇨기과 원장>

### 뉴스퀴즈

78. 원도 출신으로 미국프로골프(PGA)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선수의 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필마픽처스는 최근 이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탱크의 눈물’이라는 20부작 드라마의 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사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감춰진 이야기들, 인간으로서 숨겨진 고뇌와 열정 등을 드라마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탱크’로 불리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최경주 ②양드레 김 ③선동열 ④미של 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 함께 풀어봅시다 < 2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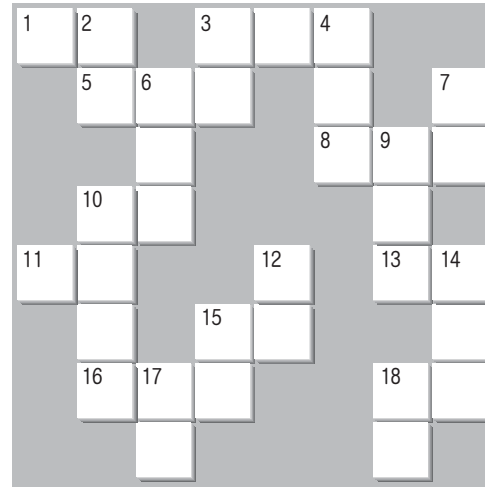
#### → 가로 풀이

1.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 껍의 ~을 까다. 양파의 ~을 벗기다. 3. 체계적인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측정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 표본을 뽑아내는 바탕이 된다. 5. 책의 낱장과 낱장의 사이를 이르는 말. 단풍잎을 ~에 끼워 놓았다. 8.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넷째 날. 10. 살아가기 위한 방도. ~을 찾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백성들은 ~이 막막했다. 11. 우편, 전신, 전화 등으로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을. 무전으로 ~하다. 13. 사람을 해외로 내보냄. 또는 물품, 전기, 전파, 정보 등을 기계적으로 전달함. 전파 장애로 TV 프로그램 ~이 중단됐다. 15. 싸움터나 경기장에서 싸우거나 싸우려고 나선 사람. 또는 사회 운동에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 향

일 ~. 16.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갑작스러운 ~에 놀라다. 18. 침묵 위에 절제의 계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가치를 온전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철도. ~ 건널목.

#### ↓ 세로 풀이

2. 꾸짖어 나무람. 호된 ~을 받다. 3. 털가죽을 이르는 말. 4. 명절이나 큰일이 바깥 다갈 때. 신달 ~. 이 ~에 돈을 빌리러 다니니 빌릴 수가 없었다. 6. 여러 갈래로 갈린 길. 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로. 선택의 ~. 7. 각각의 개별적인 내내. →일일. 그는 ~ 반감을 샀다. 9. 스위스 알프스 지방에서, 가성(假聲)을 섞어 특이한 소리를 내어 부르는 민요. 또는 그런 창법으로 부르는 노래. 10.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일을 이르는 말. 12. 그물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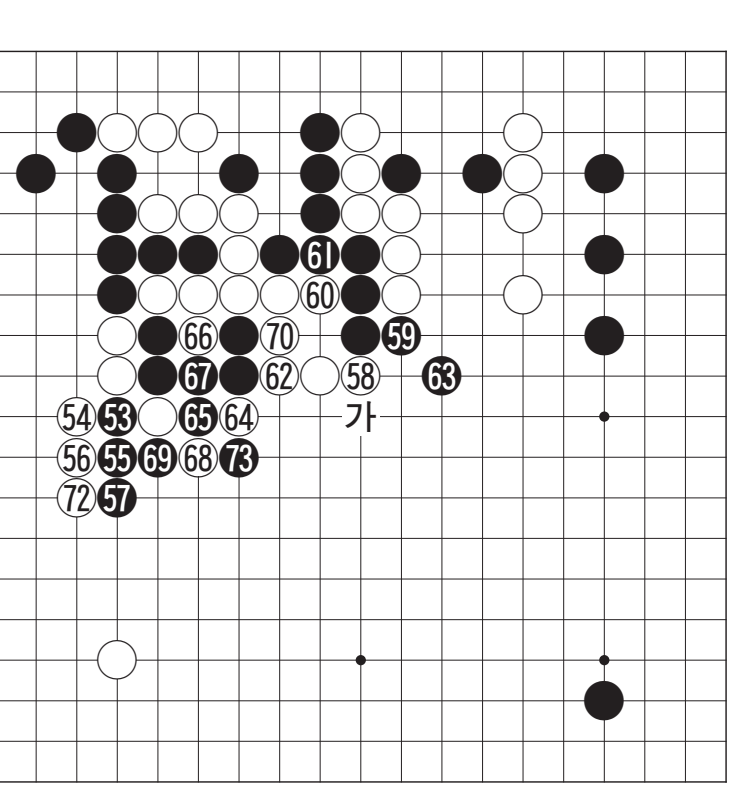


<함께 풀어봅시다 264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이경운·광주시 북구 운안동 천정희·광주시 북구 중흥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찬스를 놓친 집착 4보(53~73)  
白 김영수 5단 (호남 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중앙 흑 돌이 약하지만 일단 흑 53으로 끊어 선제 공격을 하게 되어서는 모처럼 공격의 주도권을 탈환했다. 백 54로 돌 수밖에 없을 때 57까지 스투를 넣어 기본 좋은 흐름이다. 김영수 5단은 따라다니는 것이 기질에 맞지 않는다. 또 왼쪽을 두다가 중앙을 끊어오는 것이 겁난다. 그래서 먼저 58로 막고 70까지 중앙을 신나게 휘둘러진 다음 72에서야 72에 두었다. 여기까지는 외길수순처럼 두

**바둑소식**  
이창호 9단 2년5개월여 만에 세계대회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9단은 최근 대만에서 열린 제3회 중화배 세계바둑대회 결승에서 박정상 9단을 156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이겼다. 이 9단은 초반 좌변전투에서 흑의 대마를 포획하며 일찌감치 우세를 잡았다. 우승 상금은 5천600만원. 이 9단의 세계대회 우승은 지난 2005년 제5회 중화배 이후 처음이다. 이 9단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국제대회 우승 23회(비공식 2회 포함), 통산 133회 우승을 기록했다. 이 9단의 우승으로 한국은 1회 박정훈, 2회 최철환에 이어 3회 대회까지 석권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8일 丙戌)

- 36년생 경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48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60년생 자신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긴다. 72년생 바뀌어진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84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라. 행운의 숫자: 08, 30
- 37년생 이왕 출발하면 앞만 보고 가거라. 49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61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73년생 걱정을 버려 생각했던 걱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85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11, 25
- 38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파소비가 있을 수 있다. 50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니 주변을 살펴보자. 62년생 직장에서 인종과 정찬을 받는다. 74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면 재산을 면한다. 행운의 숫자: 04, 33
- 39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 51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멀리 두어야 한다. 63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75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人德을 배워라. 행운의 숫자: 23, 26
- 40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우하라. 52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4년생 돈은 생기기 소비가 크다. 76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12, 27
- 4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53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봐라. 만족은 하리라. 65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7년생 솔직한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21, 33
- 42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4년생 실마리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6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8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09, 29
- 43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5년생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67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79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복하다. 행운의 숫자: 14, 40
- 44년생 두드러라 그러면 열리리라. 56년생 득도 말고 실도 많은 남이니 마음을 비우라. 68년생 靑上의 靑을 찾아봐라 마음이 평안하라. 80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07, 37
- 45년생 아침은 무척이나 후회는 할바라진다. 57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69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81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05, 34
- 46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8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을 전해온다. 70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82년생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17, 26
- 47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도 말라 행복이 될 것이다. 59년생 다부면 손재 양보하면 득이 된다. 71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3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박한 일이 없다. 행운의 숫자: 03, 38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 굿모닝 잉글리쉬 <973>    오하오우 니혼고 <973>    니하오 쑹구위 <163>    한자 이야기 <590>

**Put your baggage on this scale**  
당신의 짐을 이 저울 위에 올려 놓으세요

A : Please put your baggage on this scale.  
B : All right.  
A : OK. We'll take care of this.  
B : Can I Carry this bag with me?  
A : Yes, you can. Here is your claim tag and your boarding pass.

A : 당신의 짐을 이 저울 위에 올려 놓으세요.  
B : 그러죠.  
A : 됐습니다. 저희가 이 짐을 처리하겠습니다.  
B : 이 가방은 가지고 가도 됩니까?  
A : 그럼요, 여기 화물표하고 탑승권입니다.

\* take care of : 처리하다, 맡다  
\* claim tag : 수하물 표  
\* boarding pass : 탑승권  
\* 제 짐을 여기에 놓을까요?  
= Shall I put my baggage here?

**蟲齒(むしば)が痛(いた)くて我慢(がまん)できないよ。**  
충치가 아파서 참을 수 없어요

A : 蟲齒(むしば)が痛(いた)くて我慢(がまん)できないよ。  
B : 早(はや)く歯(は)醫(い)者(しゃ)に(はいしゃ)に行(い)って治(ち)療(りょう)し(して)もら(もら)った方(かた)が(が)いいよ。  
A : うん。でもちょっと怖(こわ)くてね。  
B : 蟲齒(むしば)の治(ち)療(りょう)は、早(はや)いほどお金(かね)も掛(か)か(か)らないし、痛(いた)くないって言う(い)う(う)だろう。

A : 충치가 아파서 참을 수 없어요.  
B :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A : 응. 하지만 조금 무서워서.  
B : 충치 치료는 빠를수록 돈이 들지 않고,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

我慢(がまん)できないよ : 참을 수 없다  
~~もらった方(ほう)がいい : ~! 해 받는 편이 좋다  
早いほど : 빠를수록  
怖(こわ)い : 무섭다

**我去(わ)古(こ)董(とう)市(し)場(じやう)**  
저는 골동품 상가에 가요

A : 師傅(しゆ), 我去(わ)古(こ)董(とう)市(し)場(じやう).  
Shifu, wǒ qù gùdǒng shìchǎng.  
스승, 옛 골동품 시장.  
B : 哟(哟), 你的(你的)中(中)国(国)话(话)说(说)得(得)不(不)错(错).  
Yo, ni de zhongguo hua shuo de bucuo.  
오, 너의 중국화 말 수월하구나.  
A : 我(我)在(在)中(中)国(国)生(生)活(活)五(五)年(年)了(了).  
Wo zai zhongguo shenghuo wu nian le.  
저는 중국에서 생활한 지 5년입니다.  
B : 你(你)喜(喜)欢(欢)中(中)国(国)古(古)董(董)吗(吗)?  
Ni xihuan zhongguo gudong ma?  
네는 중국 골동품을 좋아하십니까?  
A : 신장님, 저는 골동품 상가에 가요  
B : 오, 너의 중국어 실력이 훌륭하네.  
A : 제가 중국에서 생활한 지 5년이나 되었어요.  
B : 너는 중국 골동품을 좋아하십니까?  
古董 (gùdǒng) 골동품

**秋(秋)扇(せん)**  
가을 추, 부채 선

추선(秋扇)은 가을 부채라는 뜻으로 철이 지나서 못쓰게 된 물건, 또는 남자의 사랑을 잃은 여성을 비유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한(漢)나라 성제(成帝)에게 반침여와 조비연(趙飛燕)이라는 후궁이 둘 있었다. 처음에 성제는 반침여를 총애하다가 차츰 조비연에게로 사랑을 옮겼다. 조비연은 흑사라도 성제의 마음이 다시 반침여에게 되돌아갈까 걱정하였고, 끝내 반침여가 임금을 중상모략했다고 무고(誣告)하여 반침여를 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반침여의 혐의가 풀려 조비연은 임금의 총애를 잃고 말았다. 조비연은 임금의 사랑이 떠간 자신의 처지가 마치 가을이 되어 쓸모없게 된 부채와 같다고 생각하여 '원가행(怨歌行)'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추선(秋扇)'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로 재단한 제(齊)나라의 흰 비단은 / 서리와 눈처럼 희고 깨끗하다/마를질하여 합환선(合歡扇)을 만드니 / 등글기 명월(明月) 같구나 / 님의 품과 소매를 드나들며 / 움직일 때마다 서늘한 바람을 일으킨다 / 문득 두려운 가을이 와 / 서늘한 바람이 더위를 빼앗으니 / 가을 부채(秋扇)는 장롱 깊어 버려져 / 은정(恩情)이 끊기는구나 (文選)